



효도하는 스승과 제자의 만남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코로나 19시대의 만남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구인지 분간하기 어려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지나친다.

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효도하는 후손들은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정성껏 별초한다. 필자는 추석을 앞둔 일요일에(9월 12일) 고향인 몽탄면의 산소에 찾아가 별초하고 등산복 차림으로 배낭을 메고 몽탄역(역무원이 없는 무인역)에서 막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이가 서울에 가려고 막차를 탄다면서 동행자가 되었다.

젊은이는 가방도 없이 빈손이었으며 피곤해 보였다. "어르신은 오늘 일요일인데 어떤 일을 하고 가십니까?" "조상의 산소에 별초하고 갑니다." "저도 조상의 산소에 별초하고 갑니다." "하산 일이 같은 조상에 효도하는 일이 구 무뇨"

"어르신은 올해 연세가 몇 세입니까." "83세입니다." "저는 올해 71세인데 예조기로 별초하는 일이 힘들었는데 어르신은 아주 힘드셨지요?" "저는 일하는 즐거움으로 살기 때문에 예조기로 힘든지 모르고 일

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르신은 고향이 어디 십니까?" "몽탄면 사천리입니다." "저는 고향이 몽탄면 내리 남천입니다." "사천리가 고향이시다면 혹시 정기연 선생님을 아십니까?" "제가 정기연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절을 하고 필자를 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60년대 필자가 몽탄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 6학년 때 담임한 제자 서경욱을 56년 만에 만난 것이다. 그것도 두 사람이 다 조상의 산소에 별초하고 가는 효성스러운 일을 하고 가느라 작업복 차림으로써의 만남이다. "선생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썼으니 명함에 있는 사진으로 보시게" 하며 사진이 들어 있는 명함을 주었더니 명함의 사진을 보고 감격하며 필자를 껴안고 울었다.

몽탄역에 오후 6시 51분 막차가 도착하여 승차한 후 자리를 같이하며 경욱이의 지난날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다. 서경욱은 목포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했으며 부친의 직장 따라 서울로 이사 가서 서울에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 중 부친이 46세로 별세했으며 제대 후 경찰시험에 합격해 경감으로 정년 퇴임을 하고 지금은 제2의 직장을 선택해 근무하고 있다 했다.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해마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와서 산소에 별초하고 가는 효성스러운 제자가 자랑스러웠다.

경욱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필자가 살아온 이야기를 했다. 필자는 경욱이 졸업한 65년도에 현경초교로 전근했고, 70년도에 광주시로 전근했으며 광주에서 10년 근무를 마치고 80년도에 신안군으로, 거기에서 교감 승진하여 84년도에 영암군으로, 완도군으로, 나주시로 나주시에서 교장 승진하여 여주시 소라서 초교로 여주시에서 영암군 신북초, 신북초교로 거기에서 곡성 오산초교로 전근해 2001년에 43년의 교직을 마치고 정년 퇴임했으며,

그 후 호남 직업학교에 임용되어 6년간 직업교육을 받았으며, 실버넷 뉴스를 비롯한 전광일보 전남도민일보 대한일보 전광투데이 광주전남 뉴스 기사 논설위원 주필로 글을 쓰면서 현재는 연간 200여 편의 칼럼을 쓰고 있으며, 일하는 즐거움으로 고향 몽탄면에 가서 유실수를 가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칼럼

송정리역에서 하차하여 인근에 있는 전주식당으로 갔다. 식당의 전문 메뉴인 소머리 국밥 주문을 해 놓고 마스크를 벗은 얼굴로 담임선생님 반갑습니다. "경욱아! 반갑다!" 서경욱은 필자를 껴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초등학교 때도 키가 컸는데 어른이 되어서도 키가 크고 건강한 사람이었다. 식당 밖에는 수많은 사람이 식객으로 다녀간 표지로 사인을 했는데 김대중 나훈아 황석영 등 많은 사람의 사인이 벽을 메웠다.

음식 주문을 해 놓고 경욱은 잠깐 다녀올 데가 있다며 밖에 나갔다가 와서 주문한 소머리 국밥을 같이 맛있게 먹었다. 오랜만에 스승과 제자가 만나 먹는 음식이다. 식사가 끝난 후 경욱은 밤 9시 KTX 열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먼저 선생님을 전송한 다음 지하철 에스캐레이트 입구에서 헤어졌다.

경욱은 이별의 악수를 하며 내 손에 구겨진 돈을 주고 있었다. "카드만 있고 현금이 없어 현찰 돈을 빼려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스승님께 대접을 못 해 선물값으로 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선생님!"

지하철 열차를 타고 가면서 손에 든 돈을 펴 보니 1만 원 권 지폐가 열 장 들어 있었다. 마스크를 쓰고 사는 코로나 19시대에 효도하는 제자와 스승의 만남은 자랑스러운 보람이었다.

기고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나의 생각

홍주영 여수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내 제한속도를 대중교통이 다니는 일반도로는 50, 스쿨존 등 보행 안전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30으로 규모와 성격에 따라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으로 4.17일부터 시행하여 6개월이 흘렀다.

도로가 신설되거나 확장되면 설계가 설계속도와 함께 교통표지판을 적시하여 경찰서에 협의하러 다니다.

여기서 경찰관은 해당 도로가 건물, 보행자수 등을 고려하여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한속도이고, 여기서 또 도심권에 서 보행자가 많은 것을 고려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절한 속도가 얼마인지를 연구한 끝에 50과 30이 적정해졌다 하여 안전속도라는 정책적인 개념을 도입, 이를 도로교통법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첫 번째 정책인 속도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더욱 보강하고 신호주기도 속도에 맞춰보고 과속단속카메라도 설치해 본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 스쿨존(30)에는 의무적으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끔 되어있고 또 자치경찰제 시행과 더불어 자치사무의 일환인



카메라 설치를 지자체에서 민원인의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설치하

다 보니 평소 그 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들은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준수하던 때와 달라져 부담함을 느껴 현실과 안 맞는 정책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효과가 미약했던 과거 경찰의 교통단속 및 홍보활동보다 이번 안전속도 5030을 계기로 더디지만 하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스쿨존 의무화와 맞물려 확대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속도가 낮춰지고 사망자 수가 급감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

정책의 효과성을 보여면 1, 2년 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주요 시설물은 과속단속카메라 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는 만큼 안전속도 5030이 정착될 때까지 앞으로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I를 장착한 자율주행기술이 발달하여 사람이 아닌 자동차 스스로 운전해주는 시대가 오면 카메라도 도심에서 의미 없는 흉물 이 될 날을 기대해본다.

기고

법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엄중히 처벌해야

박은유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오는 10월 21일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안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번질까 두려웠던 피해자

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있다.

또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과 같이 응급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가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되어있다.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스토킹 처벌법!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있기에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해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법을 쉽게 어기게 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세 모녀 살인사건' 발생 이후 스토킹 처벌법 법안이 통과되었듯 많은 법들이 비극적인 사건 발생한 후에야 제정되곤 한다. 이러한 이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법 제정된 후 고소·고발을 악용하여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신중하게 제정되었던 법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 둘째는 가해자는 낮은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무거운 짐을 지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가 잘 이루어지도록 높은 수준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법률구조상담 132
▲ 응급질병상담 1399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 고장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